‘문화수도 광주’ 외치더니…

16일 개막 예정 국제공연예술제, 예산 확보해 놓고도 조직위 등 구성 안돼 취소

광주 문진위·예총 11월께 개최 추진

공연계의 큰 축제인 제 3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개최가 일단 무산되면서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16일 광주시와 (사)광주국제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연예술제가 준비 소홀을 이유로 전면 취소됐다.

2006년 민간에서 개최한 공연예술제는 지난해 시가 공동주최자로 합류, 시비와 국비 6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였지만 행사를 진행할 조직위원회 등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육책으로 광주예총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주축으로 오는 11월께 행사 추진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기가 촉박해 졸속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행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관련 지역 예술계와 시 모두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조직 내 불협화음 등을 이유로 이사장과 일부 집행위원 등이 사퇴한 후 6개월이 넘도록 조직이 꾸려지지 않은데다, 굵직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이미 우려의 소리가 팽배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을 지원하는 시는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행사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시는 광주연극협회 등 광주예총 산하 단체들이 최근 “어떤 형태로든 공연예술제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광주예총과 함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축으로 공연예술제의 정상화를 모색중이다.

행사가 아예 열리지 않을 경우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데다 내년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다는 게 이유다.

지역 예술인들 역시 일단 공연예술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늦어도 오는 11월말까지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연예술제 개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사회의 의결없이 제 3의 단체가 진행하는 행사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일단 시는 보조금 지원은 특정단체가 아닌, ‘국제적인 공연행사’라는 ‘목적’에 지원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 걸림돌은 공연장 대관이다. 현재 문예회관 등 대형 공연장의 경우 하반기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 건설 순조 박광태(가운데) 광주시장은 16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건설 현장을 방문해 노인 편의시설 등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했다. 지난 2006년 5월 착공된 노인건강타운은 현재 9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시 제공〉

광주·전남, 기업 유치 어려워지나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국회에 제출

이전 예정 기업들 포기 잇따를수도

공장총량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도권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돼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발전 정책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안 개정으로 수도권에 공장 등의 신·증축이 허용될 경우 시·도로 이전을 약속한 기업들이 이전을 포기하거나, 투자한 업체마저 수도권으로 ‘U턴’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유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광주시)은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대규모 공공시설 등의 부지나 낙후지역, 자연보존 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별도의 개발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장을 신축할 경우 총량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과밀부담금이나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산업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을 통해 연관 기업을 유치하려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지방이전 기업 급감으로 인한 산단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친 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할 경우 사회간접 자본 등 기업환경이 좋은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리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며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학 전임강사제 내년부터 폐지

교과부, 대학규제 대폭 완화

대학 전임강사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고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시안에 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계획 시안은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담고 있다.

수정, 보완된 내용을 보면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해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낭비·행사성 경비 대폭 축소

내년 예산 5,742억원 아낀다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낭비·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해 5천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예산편성상 절감계획’을 발표하고, 절감목표액을 도 본청은 1천108억 원, 일선 22개 시·군은 4천634억 원 등 총 5천742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감액은 인력운영비 426억 원, 기본경비 193억 원, 각종 사업비 5천103억 원, 재무활동 20억 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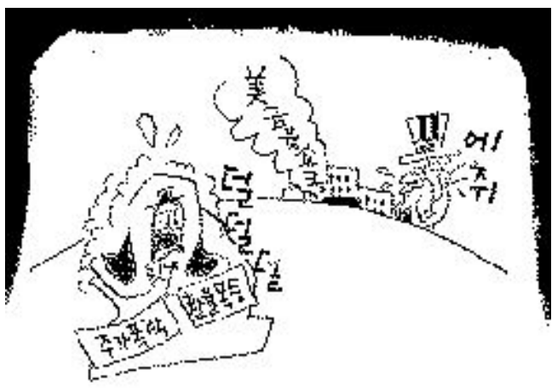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 인원을 조기에 정리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도록 했다. 또 사업비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신기술 도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절감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 경상보조금 중 낭비성·행사성 예산을 크게 줄이는 대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계속사업 중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도록 했으며,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빛日만평

- 김종두



美가 기침하니 우린 바로 독감이군

▶1면 ‘광역경제권’서 계속

여기에다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영·호남 경제적 불균형을 한층 심화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호남권에 광주, 전남·북을 묶어 1개 권역을 설정해 5개 사업을 선정한 반면, 영남에는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2개 권역에 각각 5개 사업을 지원키로 하는 등 영남 편중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문화권이 다른 전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분리하고 광주와 전남을 묶어 별도 권역으로 설정하는 등 호남권에 2개 권역을 둘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병록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이제라도 정부가 구태의연한 일방 주도형 사업추진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지방 공기업

복리후생비 등 오늘부터 감사

감사원이 17일부터 광주시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도시공사 등 광주·전남지역 공기업 6개를 비롯, 전국 5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16일 “지방공기업이 지난 2006년 97개에서 올 해 121개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불필요한 조직·인력 운영,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등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확산시키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지방공기업은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공사, 제 3섹터 출자법인 등 모두 54개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시 도시철도공사·광주시 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정보센터·㈜무안황토랑유통 등 6개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단체장 공약이나 공무원 자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을 함부로 설립하고 있는지 여부 ▲책임 회피를 위한 부실 지방공기업 운영 여부 ▲설립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 추진 및 민간부분과의 경합·중복되는 사업 유무 ▲특정인을 위한 불필요한 조직(상임이사 등) 운영이나 불합리한 승진(특별·자동승진) 제도 운영 여부 ▲단체장 인사개입 및 채용비리 ▲인건비 편법인상 및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사내복지기금 과다 출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대상 광주·전남 공기업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정보센터 ▲㈜무안황토랑유통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분양·모집·초청·영업·모임·사업용·매매·부동산·미매·임대·전세·분양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협 : 0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직통:227-9600 • FAX:227-9500

산행 안내 광고는 18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공 고
본 회사의 2008년 9월 12일자 전기공사업(분할 합병)공고중 『주식회사 영화전기(대표이사 원력연)』을 『(대표이사 원경연)』으로 『4.양도자:대표이사:원경원』을 『대표이사:원경연』으로 『4.양도자:주소: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793-7번지』를 『서변동1739-3번지』로 정정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17일

분할합병및주권제출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대승전기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운전기통신”(이하“을”이라한다)은 서기 2008년 09월 16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제 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 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8년 09월 17일
“갑” 상 호 : 대승전기 주식회사
소 재 지 : 광주 서구 광천동 711-19
대표이사 : 김 봉 자
“을” 상 호 : 주식회사 대운전기통신
소 재 지 : 경기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
대표이사 : 변 금 순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성희(550924-2621614)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1492
공 고 인:문 훈, 문정현
한정승인수리일:2008. 9. 11
공고기간:2008. 09. 17~2008. 11. 16
연 락 처:광주 서구 쌍촌동 137-4 신천힐탑맨션 101-2501 문 훈 (010-5136-9422)

주식액면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당사는 2008년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5,000원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6일
쿱케앤블프 주식회사 코리아
광주광역시 북구 중촌동 958-3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트 생산동212-1호
대표이사 정 철 웅

고혈압 환자 임상연구 지원자 모집
항고혈압제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 중입니다.
• 참 여 대 상 : 만 18세 이상 75세 이하 본태성 고혈압 환자
• 참 여 기 간 : 기초검사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10주간,총 5회 내원
• 참여시 혜택 : 참여기간 동안 고혈압 치료약과 각종 검사(ECG, 심초음파, 혈액검사, 뇨검사 등)를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 락 처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본 연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2-220-6269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외래

흡수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와 분할합병 공고
1. 신아공업 주식회사 (“갑”)와 주식회사 태진전력 (“을”)과 유한회사 대양전력 (“병”)은 2008년 9월 12일 “갑”회사와 “을”회사에서는 주주총회결의로, 같은 날 “병”회사에서는 사원총회 결의로, “갑”은 “을”과 “병”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 무를 승계하고, “을”과 “병”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을”의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할당 교부하고, “병”의 액면 10,000원의 출자좌수 1좌에 대하여 “갑”의 액면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할당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을”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의가 있으신 주주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아공업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금오전선(“정”)은 2008년 9월 12일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과 “갑”이 분할합병하고, “을”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8 년 09 월 17 일
“갑” 신아공업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92-15 대표이사 정정현
“을” 주식회사 태진전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458-1 대표이사 남진우
“병” 유한회사 대양전력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58-90 대표이사 김남권
“정” 주식회사 금오전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248-2,2층 대표이사 오경성

법원경매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태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신용동	용두주공	20평/8층	6천	4천2백
금호동	미재주은	32평/1층	1억5천	1억360
운흥동	대주	32/10	8천5백	5천950
진월동	중흥	33/10	9천5백	6천650
화순읍	유림맨션	28/17	4천5백	3천150
매곡동	삼익	32/17	8천1백	5천670
지평동	해광한신	24/8	8천2백	5천470
학동	삼익세라믹	46/13	1억6천	1억1천백
하남	하남시영	21/12	4천4백	3천80
주월동	현대	31/9	9천3백	6천510
월산동	제일파크	27/3	4천7백	3천290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신가동	57/93	2억6천	1억4천
	일곡동	103/148	3억5백	1억6천
	계림동	66/119	3억8천	2억1천
상가주택	금호동	65/150	4억3천	2억4천
	남평읍	282/86	2억3천	1억3천
	일곡동	125/257	9억7천	5억4천
	운림동	57/99	2억2천	1억2천
	유촌동	60/133	3억9백	1억7천
근린상가	월계동	55평	2억4천	1억4천
	풍암동	14평	6천3백	3천5백
	월계동	150평	11억2백	6억2천
	금호월드	42평	9천2백	4천1백
오피스텔	제일오피스텔	60평	2억6천	2억9천
	동광오피스텔	60평	2억7천	1억2천
	상무구영	19평	9천5백	5천3백
	금호월드	15평	3천8백	2천1백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화정동	169/768	14억2천	7억9천
광천동	136/468	13억6천	9억3천
대인동	39/92	13억6천	9억3천
광천동	105/263	7억3천	3억2천
중흥동	80/293	9억5천	5억3천
누문동	134/400	14억5천	6억5천
월산동	117/295	7억3천	5억5천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양산동	69/81	2억150	1억2천
우산동	45/33	7천5백	4천2백
월산동	60/54	1억3천	7천2백
벽운동	38/25	7천	3천9백
빙림동	32/49	6천3백	3천5백
농성동	42/43	1억4백	5천8백
중흥동	53/46	1억6800	9천4백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옥동공장	2천/1천4백	35억	17억
양산동	500/285	6억4천	3억6천
지야동	(답)726평	7억2천	4억3백
나주다시	(전)794평	2천4백	1천4백
세하동	(전)267평	1억2천	6천4백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시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062)236-2468